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 ‘한라독서회’ 사례를 중심으로 -

Citizenship Learning by Participation
on Learning Circle

: A case study of Halla Reading Club in Jeju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고 정 희

2019년 8월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 ‘한라독서회’ 사례를 중심으로 -

Citizenship Learning by Participation
on Learning Circle

: A case study of Halla Reading Club in Jeju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고 정 희

2019년 6월

고 정 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명석 인

심사위원 송재홍 인

심사위원 김민호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v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1. 시민성의 개념	5
가. 시민성의 의미	5
나. 시민성의 내용	7
2. 시민성 학습의 개념	8
가. 시민교육과 시민성 학습	8
나. 시민성 학습의 유형	10
3. 학습동아리와 시민성 학습	15
가. 학습동아리 개념과 역사	15
나. 학습동아리의 유형과 특징	18
다. 학습동아리 활동과 시민성 학습	20
III. 연구 방법	
1. 연구사례 : ‘한라독서회’	22
2. 연구 참여자	23
3. 연구절차	25
가. 자료수집	25
나. 자료분석	27

IV. ‘한라독서회’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1. ‘한라독서회’의 활동	29
가. ‘한라독서회’의 일상활동	29
나. ‘한라독서회’의 특별활동	29
다. ‘한라독서회’의 비공식활동	30
2. ‘한라독서회’의 활동 참여에 나타난 시민성	31
가. 주체성 획득	32
나. 다양성의 존중	37
다. 비판적 의식	41
라. 공동체 의식	45
3. ‘한라독서회’ 활동에서 시민성 학습의 상황	53
가. 토론을 통한 독서와 일상의 연결	53
나. 학습동아리 운영 참여	57
다. 학습동아리 모임결과 공유	59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62
2. 결론	64
참고 문헌	66
ABSTRACT	70
부 록	73
1. 연구 참여 동의서	73
2. 연구 참여자를 위한 질문지	74

표 목 차

〈표 II-1〉 스터디 서클과 학습동아리의 비교	16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23
〈표 III-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26
〈표 IV-1〉 ‘한라독서회’의 활동	32
〈표 IV-2〉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시민성 학습의 내용)	53
〈표 IV-3〉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시민성 학습 상황)	61

국 문 초 록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 ‘한라독서회’ 사례를 중심으로 -

고 정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학습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활동을 통해 학습한 시민성을 알아보고 시민성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맥락을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한라독서회’ 회원들의 활동 동기와 내용, 활동 경험을 통한 의식의 변화, 그에 따른 실천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학습동아리의 한 유형인 ‘한라독서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헌조사와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활동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 카페와 밴드의 기록물, 회원들의 글모음, 회의자료, 토론을 위한 발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한라독서회’ 회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활동의 경험과 느낌, 인식 및 삶의 변화를 탐색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하면서 활동 현장에서의 생생한 느낌을 통한 시민성 학습의 의미와 맥락을 발견하려 노력하였다.

연구를 통해 ‘한라독서회’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라독서회’은 ‘한라독서회’의 일상활동, ‘한라독서회’의 특별활동, ‘한라독서회’의 비공식활동으로 구분짓을 수 있었다. 그 활동을 통해 시민성 요소 중에 주체의식, 다양성의 존중, 비판

의식, 공동체 의식이 나타났다.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임을 인정하고 독서회 활동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서 주체의식을 기르고 있었고, 서로 삶의 배경이 다른 회원들과 활동하면서 다양성의 이해와 수용, 조율을 학습하고 있었다. 인문학 서적을 통한 자기 성찰과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르고 있었고, 활동에 얻어진 경험과 정서적 동질감을 주변 이웃에 대한 봉사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한라독서회’ 활동에서 시민성 학습은 토론을 통한 독서와 일상의 연결, 학습동아리 운영참여, 학습동아리 모임결과 공유라는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책의 인물들의 삶과 회원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삶의 원리와 지혜를 배우고 있었고 그 과정은 평등하고 존중받는 토론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습동아리 운영 참여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안을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모두의 관점을 담아내는 참여적 해법을 찾아 가고 있었다. 또한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과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지역문제로 인하여 갈등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동적인 시민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시민성을 길러내야 하는가에 있어서 교실 안이나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무형식 학습 속에서도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이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시민성, 시민성 학습, 학습동아리 활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광화문 광장으로 사회적 불평등, 고위 관리직들의 부정부패, 빈부의 격차로 인한 서민들의 삶의 피폐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추운 겨울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나섰던 것은 바로 ‘시민’이었다.

그 이후 한국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 되고 사회불평등의 격차로 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정치권은 이런 서민들의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한 다툼으로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능력과 책임의식을 겸비한 시민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의 요구속에서 시민의 자질을 갖춘 시민은 어떻게 길러지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만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민관협치 또는 민관 공치를 뜻하는 거버넌스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양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백서(2018)에서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시민성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 평생교육기관 등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둘째, 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이다. 다양한 동아리, 시민사회단체, 집회 및 시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이 함양됨을 말한다. 셋째, 다른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이다. 문해교육, 종교교육, 인문학 강좌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경우이다.

지역에서는 최근 교통, 환경, 지역경제 등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공익을 위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 기초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평생학습도시’사업 덕분에 지역주민은 학습동아리, ‘누구나 학교’, ‘학습 등대’, 교육봉사 등 ‘학습공동운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면서 시민성 함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김민호, 2016). 수원평생학습관은 2016년에 마련한 다양한 인문사회 강좌들에서 시민성 학습을 의도하였고, 성남시의 경우 2018년에 민주시민교육 소양·심화강좌를 운영했고, 서울시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일상의 민주주의 시민적 학습’이란 주제로 교육하였다. 또한 서울시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성은 시민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문학 교육 등 여타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기를 있다는 취지하에 2013년 문을 연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는 2018년까지 1,398개 강좌에 65,196명이 참가하였다(김민호, 2019).

시민성 학습의 확장을 위해 시민교육의 내용을, 정치적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 전반으로, 방법을 강의를 통한 지식 주입식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한 문제 제기식으로 확장해야 한다(이은미 외, 2014)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적합한 사례로는 평생교육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동아리를 들 수 있다.

평생교육에서는 2001년부터 학습동아리를 지원 및 육성해 왔다. 박상욱(2014)은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때,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커지고 결국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자본 강화로 이루어져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개인의 삶, 지역적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또 지역의 주체로서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학습동아리를 연구하였다.

인문학 학습동아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문학 학습동아리 활동의 결과로써 조창희(2018)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의 인문동아리 활동에 나타난 전환 학습 경험을 밝혔으며, 정유진(2008)은 자발적 독서토론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집단역동이 구동됨을 규명하였다. 시민성 함양과정을 연구한 사례에는, 평생학습관의 학습동아리 사례에서 송경미(2017)은 책읽기 재능기부 학습동아리 ‘책누리’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실천을 통해 나타난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학습동아리 활동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됨을 보여주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문학 학습동아리 사례에서 이준석(2016)은 ‘문탁네트워크’가 순수학습을 매개로 치열하게 읽고, 논쟁하고, 글쓰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세상과 연대하고, 이를 통해 수동적인 삶의 모습인 ‘살아가짐’이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살아가기’로 바뀌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학습동아리에 관한 연구에서 서계녀(2009)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공공서관 내 학습동아리의 운영 실태와 활동내용을 분석하여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내의 인문학을 매개로 한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 현상을 분석하여 그 경험에서 학습되는 시민성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목적은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 학습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타율과 자율이 섞인 반자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시민성과 그 시민성이 내면화되는 맥락을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식교육이 아닌 회원들이 학습동아리 활동 안에서 시민성 학습의 초심자가 ‘합법적 주변 참여’를 통해 학습되는 시민성의 요소들을 분석하여 시민성이 꼭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함양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관련된 아주 작은 경험 하나에서부터의 학습이 무형식적으로 촉발될 수도 있다(이은미, 2015)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한라독서회’ 회원들의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그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시민성이 무엇이며 어떤 맥락에서 시민성 학습이 일어났는가를 밝히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라독서회’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2. ‘한라독서회’ 회원들은 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해 어떤 시민성을 학습했나?
3. ‘한라독서회’ 회원들의 시민성 학습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나?

Ⅱ. 이론적 배경

1. 시민성의 개념

가. 시민성의 의미

시민성을 뜻하는 ‘citizenship’은 시민이란 뜻의 ‘citizen’과 자질 및 조건을 의미하는 ‘ship’들 합친 용어이다. 원래 ‘시민’은 라틴어로 ‘부르가리우스(burgarius)’라고 한다. 이는 ‘성(城)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시민도 도시공동체(polis)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했다. 로마시대 역시 ‘키비스 로마누스(civis romanus)’라고 부르며 로마(제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시민으로 간주했다. 이처럼 시민을 ‘성안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짓는 시민의 어원적 의미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이관춘, 2011).

시민의 개념은 역사 속의 정치공동체들이 시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개념이 결정된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에서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며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을 시민이라 칭했고, 근대 시민사회 성립 과정에서 탄생한 시민은 국가의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과 참정권을 확보한 사람을 의미했다(Heater, 2007). 즉, 시민이라면 마땅히 국가의 안정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고대 그리스의 전체주의적 시민성의 전통을 부정하고 시민 개개인의 양심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김민호, 2011).

현대적 시민의 개념에서는 유팔무와 김호기(1995)는 시민을 경제적, 법률적, 정치적 관점으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민의 형성과 발전이 자본의 축적을 이룬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바라본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법적 소속성을 의미하고, 정치적 관점에서의 시민은 경제적 사회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시민을 의미한다(이은미, 2015).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인 주체로 강조하고 있는 정의에는, 윤여각 외(2012)

는 시민을 ‘권리의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민주사회의 주체’라고 정의하였고. 이은미, 진성미(2014)는 시민이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모두를 가지며,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주체’라고 하였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리드하는 시민으로서 신진욱(2013)은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행동방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시민의 정의에 있어서, 좋은 현대 시민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중심의 질서가 가져올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이슈화하고, 국가와 시장 중심의 체계모니를 견제하면서 시민사회 중심의 민주적 지배질서를 회복하는데 능동적으로 앞장서는 시민’이다(김민호, 2013).

지역사회 민주주의를 끌어갈 지역사회 시민은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이라고 하였다(김민호, 2011).

시민성이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태도나 자질을 의미 한다. 근대적 시민성의 정의로는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개념 속에서의 단일한 지위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는 물리적 영역의 범주 내로 한정되었다면(설규주, 2001), 19세기에는 ‘정치적 시민성’을 중시했고 20세기가 되면서 ‘사회적 시민성’이 등장한다. 이는 시민의 경제적 복지와 안정 및 문화적 삶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이은미, 2015).

Cohen(1999)은 시민성의 개념이 ‘법적 지위’로서의 시민성, 정치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주체자’로서의 시민성, 시민의 주관적 소속감을 의미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Heater(1990/2004)는 시민성에 있어서, 공간적 차원으로 가정, 학교,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고, 시민적 자질로서는 정체성, 주체성, 도덕성과 법적·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시민성은 설령 시민 정신과 자질을 알고 있더라도 교육을 통해 이를 지식이

나 태도·행위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이은미, 2015).

나. 시민성의 내용

Johnston(1999, 2004a)은 시민성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통합적 시민성이다. 배타적 위험 사회에서의 시민에게 필요한 자질은 바로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성을 학습하는 것으로, ‘우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차이나 인종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다. 통합적 시민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성은 다원적 시민성이다. ‘똑같음’만을 강조하는 시민성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복합성을 수용할 줄 아는 시민성인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고 공존하는 자체’가 요구된다.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질성, 파편화, 탈 중심화 등에 대해 타협과 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문화 간 대화를 강조하며, ‘다양성 속의 연대’를 발전시키다(Johnston, 2016).

셋째, 성찰적 시민성이다. “우리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Freire(1970/2000)이 주장한 의식화 교육의 지향점과 상통하는데, 반성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며, 역동적인 시민성을 말한다. 기존 사회질서에 대해 무비판적이던 사고를 비판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삶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임금으로 가사노동,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 대표적으로 여성 덕분에 임금노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자의 책임을 성찰하는 것이다(김민호, 2014).

넷째, 행동적 시민성이다. 행동적 시민성은 앞에 제시된 통합적(포용적), 다원적, 성찰적 시민성을 통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행동적 시민성은 주변의 부조리나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식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김민호, 2010). 행동하는 시민성은 개별적이고, 경제

지향적이며, 통제된 평생학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다. 행동적 시민성은 교실보다는 학습 동아리, 자발적 조직, 사회운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형의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길러 내고자 하는 시민의 역량은 첫째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억압받아 온 주변의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억압해 온 주류 집단에 대해 지역사회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는 태도이다. 둘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고 공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동의 문화를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와 연계하고 지역 문화 간 대화를 강조하며, ‘다양성 속의 연대’를 발전시킨다. 셋째,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는 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civic virtue)을 다하는 것’이다(김민호, 2016).

2. 시민성 학습의 개념

가. 시민교육과 시민성 학습

시민교육(civic education)이란 정치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곧 시민성(citizenship)을 기르는 것이다(김민호, 2011). 시민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들은 공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사용되고 있다. ‘공민교육(公民教育)’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civic education’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은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이라고 많이 표현했다. 201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의 6대 영역 중 하나로 시민교육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는 ‘시민참여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이은미, 진성미, 2014).

기존 시민교육은 첫째,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교중심의 교육은 시민과 시민성의 개념을 단순히 관념적 지식의 형태로 주입시켜 왔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행해져 실질적으로 시민교육이 필요한 성인들이 배제되어 있는 시

민교육이었다. 둘째, 국가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정권유지나 정권의 정당성을 표방하는 수단으로서 국가 주도의 시민교육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 밖의 시민교육을 담당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시민교육으로 행해져 왔다. 시민사회단체가 실시하는 시민교육은 그 단체의 목적이나 취지를 알리는 홍보성 교육에만 치우쳤고, 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교육내용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이은미, 진성미, 2014).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습동아리, ‘누구나 학교’, ‘학습등대’, 교육봉사 등 ‘학습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은 시민성 학습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해교육, 인문학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통한 시민성 형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발생 대처 과정이나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경쟁적 사회구조에서 내몰리는 공교육의 허점 등은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시급함에도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못함에 대응하여 김민호(2016)는 ‘시민성 학습의 일상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육적 인간상과 관련해서는 서구 근대사회나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중심적 인간에서 주변부적 인간 곧 지역사회 시민으로’의 전환, 교육주체와 관련해서는 국가나 시장 주도의 ‘교육자에서 시민학습자로’의 전환,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시민성에서 일상의 시민성으로’의 전환,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무지한 대중에 대한 계몽에서 ‘인식주체로서 민중의 실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민성 학습은 기존의 학습자를 수동적 객체로 인식한 ‘교수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입식이 아닌 학습자의 자율적인 시민성 학습에 주목하고 있다(김민호, 2015).

시민학습이 요청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시민성 관련 체계적 지식을 담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시민들을 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 즉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학습한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의미가 없다. 셋째, 시민교육은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 교실이나 한 학습관 안에는 성장 배경이나

생활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고유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 및 동료 학습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김민호, 2015).

시민성 학습은 일상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일상인 가정, 학교, 마을, 직장, 자원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실천공동체 안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시민성 학습이 지식교육이 아닌 시민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의 구체적 일상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되기’를 경험학습하거나(김경애, 2006; 김미윤, 2015). 인문학 학습을 통해 책에서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 문제를 생애 전반에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의 일부로 경험하고 이들을 현실적 물음으로 전환하는 것(양은아, 2010)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의 핵심인 시민성을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려 하기보다 일상생활 안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시민성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실천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시민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김민호, 2014).

나. 시민성 학습의 유형

연구자는 시민성을 학습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시민성 학습을 지식교육이 아닌 시민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김민호(2016)는 기존 시민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시민성 학습의 일상화’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육주체에 관련해서는 국가나 시장 주도의 ‘교육자에서 시민학습자로’의 전환, 교육내용과 관련해서는 ‘교육자에서 시민 학습자로’의 전환, 교육방법과 관련해서는 무지한 대중에 대한 ‘계몽에서 인식주체로서 민중의 실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때 시민성 학습은 ‘무형식적’으로 실천되며, 무형식적 학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과 연계되면서 진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시민성 학습은 김민호(2016)의 시민성 학습에 근거하였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의 평생교육백서에서는 시민성 함양을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시민성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 사회 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다른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

성을 함양하기이다.

1) 시민성 함양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 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된다.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평생교육기관 등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말한다. 주제로는 민주주의, 선거, 대화와 타협, 소수자의 인권, 환경, 평화 등을 주로 다룬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2018년 12월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도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고, 민주시민교육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7개 영역>과 만나다’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7개 영역은 평생교육, 여성운동, 주민자치,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평화교육, 지역언론 등이었다(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2018. 12.5).

충청남도는 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2018 충남 평생학습 포럼’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성남시의 경우는 2018년 상반기에 ‘미디어를 통해 본 민주시민(헌법, 준법정신, 인권 등) 8강좌와 ‘민주시민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가 양성’ 9강좌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단계별(헌법, 준법정신 등) 소양교육’ 7강좌를 운영했다(성남시평생학습과, 2019).

서울시 도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적 학습’이란 주제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2019년 3월말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교육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로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도봉살이’, ‘시민정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등의 강좌를 운영했다(도봉구평생학습과, 2019, 김민호 2019 재인용).

2)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다양한 동아리, 시민사회단체, 집회 및 시위,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이 함양됨을 말한다.

첫째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민성을 함양한다. 행정안전부(2018)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중앙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24개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2, 309개로 총 13,933개에 이른다.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2017)이 발간한 ‘한국시민사회연

감 2017'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분야는 시민사회일반, 경제, 예산감시와 납세자운동, 사회적 경제, 소비자, 사회공헌, 여성, 환경, 문화, 사법개혁, 건강과 보건의료, 평화와 통일, 국제연대와 협력, 언론, 인권, 교육, 노동, 사회복지, 이주와 다문화, 자원봉사, 기부와 나눔, 풀뿌리 자치, 노년소비자운동, 시니어문화 등 총 24개 분야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사회참여 활동 중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참여만이 아니라, 집회 및 시위도 있다. 집회의 내용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등 노동 분야 집회, 남녀 성차별, 성 소수자 등의 사회 분야 집회도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지원과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협치의 틀 속에서 주민자치 역량,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교실 형태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었으나, 일상 안에서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며 성찰하는 가운데 시민성은 향상될 수 있다.

셋째, 광주평생교육진흥원(2016)은 학습형 일자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하면서 학습자들의 학습동아리 결성과 사회환원 활동에 참여한 실적을 필수적으로 요구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함양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3) 다른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기

학습자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경우다. 문해교육, 종교교육, 인문학교육 등 여타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기를 수 있다. 수원평생학습관은 2016년 다양한 인문사회 강좌들을 통해 시민성 학습을 의도하였다(수원시 평생학습관, 2016). 서울시 평생교육과 시민대학운영팀은 2013년부터 인문학 중심의 '서울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시민성 함양을 지향했다. 4개 권역별 별도의 학습장과 함께 연계 대학의 강의실을 활용하고 있다(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2017). 이 연구에서는 인문학과 시민성과의 관계를 중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인문학

인문학은 인간으로서의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둘러싸고 구축되는 의미 세계의 구조를 탐색하는 일이다. 인문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양은아, 2010).

첫째, 인문학은 의미와 해석의 세계이다. 인문학은 획득된 무수한 사실적 자료들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는 활동을 주로 한다. 이 활동은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체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현상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드러내는 활동이다. 이 ‘의미’는 인문적 사고의 핵심으로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시발점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존재적 질문의 총위이다.

둘째, 인문학은 인간의 경험 자체를 정면으로 다룬다. 세계와 더불어 사는 인간의 경험세계를 발달시킴으로써 세계를 의미화된 구성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한다.

셋째, 인문학은 인식 주체인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자연과학적 사유방식 안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어 그 현상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화된 형태로 참여한다. 그러나 인문학을 통해 접근하는 학습의 의미는 주체인 인간이 지속적으로 대상에 반영되면서 그 의미가 창출되고 해석되는 능동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다.

넷째, 인문학 사고의 핵심은 성찰적 사고이다. 의미와 해석의 공간에서 인간의 의도와 욕망 그리고 비전에 의해 구성된 세계를 반성적으로 탐구한다. 끊임 없이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 비추어 자신의 틀을 점검하고 성찰한다. 모든 것을 성찰 범위 안에 포함하면서 그것들의 의미에 관심을 두며 우리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

다섯째, 인문적 사유는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된다. 인문적 사유방식은 인간 경험이 성장해 가는 전 생애에 걸쳐 함께 성장해 가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나와 분리된 세계에 대한 탐구와 사고를 넘어 그 세계 속에 더불어 존재하는 자신의 인간적 존재방식을 성찰하는 이중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모든 학습의 근거에는 세계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자기를 포함한 인간 자체를 대상으

로 하는 존재적이고 성찰적인 이해가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양은아, 2010).

나) 인문학과 시민성 학습

인문학학습과정에서 함양되는 시민성은 다음과 같다(양은아, 2010).

첫째, 인문학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정체성과 주체성을 재형성하게 한다. 인문학학습은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상대적 관점을 참조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거리를 두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에 대한 기준과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됨으로써 과거에 구축된 경험 자아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의미화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미래의 가능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형성해 간다. 자신에게 암시되는 상대적인 진리의 관점을 끊임없이 재검토하면서 자기 관점을 획득해 나가게 됨을 의미한다.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의 변화는 타인들의 기대가 내면화된 ‘나’에 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재조직한다.

둘째, 인문학학습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인문학학습과정에서 인문학 지식이 자신의 관심 주제와 연관되어 진지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에서 그와 연대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집단적으로 지지되고 있는 학습경험을 통해 이들은 일상적인 만남과는 차별화된 소통과 관계를 체험하고 정서적인 연대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사적인 차원에서 비롯되는 질문을 세상에 던짐으로써 누군가와 연결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의 삶과 대화하는 간접적인 소통의 관계로서 삶의 상처를 교감하며 그를 통한 위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 또한 성찰과 대화를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인문학학습은 다양성의 인정을 학습하게 한다. 인문학학습을 통해 확장된 해석적·성찰적 기반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고, 서로간의 경험적 차이를 인정하는 다름 속의 인정에서 다양성의 인정함을 배워가며, 그 과정은 소통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넷째, 인문학학습은 공동체에 헌신과 봉사로 실천하게 한다. 인문학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는 개인적 실천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잠재적인 시너지를 갖고 있으며, 서로 간의 차이는 공통의 것을 생산하기 위한 관계이다. 인문학학습공동

체 활동과정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한 배움을 경험하면서 그 공동체에 헌신과 희생. 봉사를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실천하게 된다.

다섯째, 인문학습은 의사소통기술과 비판적 사고력 역량을 키워준다. 인문학 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적역량과 비판적 사고능력은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성찰적으로 사고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킨다.

3. 학습동아리와 시민성 학습

가. 학습동아리의 개념과 역사

학습동아리는 ‘학습’이란 목적, ‘공동체’ 지향, 참여자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임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동호회, 동문회, 향우회 등과 같은 소모임은 목적이나 활동내용의 제한이 없이 주로 친목과 상호교류를 위한 모임 모두를 지칭하지만 학습동아리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여 개인과 집단의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공동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스터디 모임에서는 학습의 외적 가치인 개인의 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을 추구하지만 학습동아리에서는 학습의 내적 가치인 학습내용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모임, 즉 일반 소모임이나 스터디 모임등이 학습동아리로 전환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부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에서 서로의 재능을 나누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학습하고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스터디 모임과 학습동아리의 비교를 표로 나타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스터디 서클과 학습동아리의 비교

구 분	스터디 서클	학습동아리
대응어	민주토론편모임, 스터디 서클	learning circle 등
성 격	민주적, 공익적 성격이 강함 학습동아리의 한 형태	자발적, 주기적, 형식적인 학습집단
대표적인 사례	스웨덴의 study circle 미국의 National Issues Forums 등	각종 스터디 서클, 스터디 그룹 소모임, 토론회, 연구회 등

출처 : 오혁진(2003: 117)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성인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하여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이지혜 외, 2004).

학습동아리는 학습자의 자발성, 학습자 중심, 민주적 풍토, 솔직함 등을 포함하고 참여자는 구성원, 리더, 학습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한다.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은 스스로 배우며 서로 가르치며, 배운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다(홍숙희, 2001).

지역의 학습동아리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집단이고 학습집단 구성원은 대부분 성인이므로 성인학습동아리라고 호칭할 수 있다. 학습동아리는 학습자가 주인이 되어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배가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김남선2011).

학습동아리의 활동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함께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거나, 각자 일정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대화 형태의 학습활동을 한다. 또한 학습한 결과를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거나 주요한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학습한다. 학습동아리의 이러한 대화와 실천 활동은 참여자들이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동아리의 모든 참여자들은 수평적 관계이다. 리더나 임원은 학습동아리 운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 참여자들과 상하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학습동아리 리더

와 임원을 비롯한 모든 학습자들은 모두가 학습자이자 교수자이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학습동아리’란 스웨덴이나 미국에서의 스터디서클(study circle) 또는 호주의 학습서클(learning circle), 일본의 자주학습조직(自主學習組織)과 유사한 용어로서,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소모임을 지칭한다. 보통 5명~15명 내외의 성인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관심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는 모습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본래는 같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부딪치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찾거나 생각해보는 이슈 중심 토의가 중심이다.

스웨덴의 학습동아리 운동은 산업사회로의 전이 과정 속에서 사회갈등과 불안이 고조된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남미의 기독교기초공동체운동은 주변국가로서 빈부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생존의 기반과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 반면에 미국의 북그룹운동과 일본의 자주학습집단은 비교적 안정된 경제기반 위에서 중산층 중심의 문화교양의 추구의 경향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학습공동체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며, 그 전개 과정 역시 사회적 맥락에 맞추어 변화하여 왔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지역사회안에서 공동노동과 놀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왔던 ‘두레’와 다양한 목적에 따라 결사체를 이루고, 규약을 정해 상호 이익을 도모했던 ‘계’와 같은 형태의 집단학습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외에 사회운동단체의 학습모임, 대학생들의 학회모임, 시민단체의 조직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후속 모임 등이 있으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습동아리의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참여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학습동아리 운동도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으며 특히 YWCA의 학습공동체운동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생활협동조합에서의 동아리 활동 등은 매우 주목할 만 하였다.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해마다 선정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주민의 성장 및 역량향상과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

한 실천으로 학습동아리를 육성,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동아리에 대한 국가 정책과 지원이 거의 없었지만, 지역 특히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학습동아리가 성장 및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상옥, 2014).

나. 학습동아리의 유형과 특징

일반적으로 학습의 목적 및 그 학습의 특성과 의미에 따라 심화학습형, 전문탐구형, 문제해결형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오혁진, 2006). 이 연구에서는 생활적용형을 첨가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심화학습형에 있어서, 프로그램과정 수료 후 참여자들은 배운 지식의 심화학습과 기술 습득을 위해 후속모임이 구성된다. 이러한 학습동아리는 개인에게 학습의 초점을 맞추고, 배운 지식에다가 기술 및 전문적인 학습을 심화해가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방식 또한 리더나 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전문탐구형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공유한 학습자들이 전문영역별로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토의하고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학습의 초점은 개인과 공동학습에 맞춰지며 전문가로서 더욱 전문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지식을 재생산하여 보급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된다.

셋째,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당면과제나 장기과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시민운동 단체에 속해 있는 학습동아리들이 이 문제해결형의 특성을 지니고 이슈 중심의 관심을 가지고 선호하는 주제로 학습을 한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게 된다. 이 학습동아리의 리더는 실천적 전략가이자 조직가, 토론 및 성찰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생활적용형은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영어독서지도 동아리 참여자들은 자녀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식으로 실생활에 응용한다.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합창동아리 활동을 발전시켜 노래를 통한 지역봉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배운 것들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라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학습동아리의 조직 유형에 있어서는, 학습동아리의 조직에는 참여자가 스스로

모여 결성되는 방법과 기관중심이 되어 결성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방법은 혼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중심의 참여자가 소극성을 띠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중심의 적극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혼합형을 자주 볼 수 있다(신민선, 2004).

첫째로 참여자 주도형은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학습동아리를 조직하는 경우이다. 참여자가 공동의 관심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므로 공동의 관심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참여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자발성과 능동성이 돋보인다.

둘째, 기관주도형은 기관 중심으로 일정한 계획 아래 육성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습동아리가 조직되고 활동을 활성화는 과정은 순탄한 편이다. 또한 학습동아리가 발전단계에 도달하였을 때 이를 발판으로 다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동아리 활동이 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출발선이 참여자 중심이 아닌 기관중심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주체성을 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동아리 운영과정의 합의 등에서 자율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 명확한 목표설정에서 따른 전체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혼합형이다. 참여자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학습동아리를 구성·조직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협조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각 동아리는 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학습과정을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학습자료 정보와 학습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기관은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의의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실행한다.

학습동아리의 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첫째,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은 모든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모든 참여자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 둘째,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은 참여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참여자들은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교수자의 역할을 한다. 셋째,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은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다른 경험, 역량, 견해 등이 학습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나누고 공유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학습한다. 따

라서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지식과 견해가 존중받는다. 넷째, 학습동아리의 활동 속에서 실천과 성찰의 학습과정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학습동아리의 학습은 개인, 공동체, 지식, 지역 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생산적 특징을 가진다.

다. 학습동아리 활동과 시민성 학습

학습동아리에서 학습자들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토론 및 대화를 통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정보와 지식을 만들어서 알리고 나누어 주면서 ‘삶의 주체’로 변화한다. 또한 주변과 이웃 그리고 이웃을 넘어선 지역사회 안에 함께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실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와 헌신의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학습동아리는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고민하여 제시해 감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민주시민의 힘을 강화하는 풀뿌리 시민조직의 근간이 된다.

그람시(Gramsci, 1971)는 시민교육의 방법으로 상호 토의와 비판 과정을 기본 교육 방법으로 하는 대화법이 가장 적절한 하다고 주장했다. 대화법은 변증법적 의식을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식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화법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부정하고 현실의 모순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지니게 한다. 변증법적 대화법은 새로운 의식으로의 발전을 유도하는 Freire식 대화법이다. Freire(1970/2000)는 학습자에게 동전을 주입하듯이 지식을 주입하는 ‘은행 저금식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 제기식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 제기식 교육만이 진정한 성찰적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동적 시민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안승대, 2011), 학습동아리에서의 ‘대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은 시민성을 기르는데 토대가 된다.

성인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생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과 관련된 내 주변의 문제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논의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와 주체적 사고를

키우는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학습, 협력학습, 의견존중, 민주적 참여, 지식과 지혜 습득 등을 하게 된다(최운실 외, 2017). 또한 가치와 이념의 공유, 삶과 교육에 대하여 비전을 설정하고, 소속감과 일체감 또 참여의 금지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공동체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공헌하게 된다는 것이다(신민선, 2004).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책임있는 시민이 되고, 리더가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김영민, 2013). 즉, 학습동아리 안에서 학습자들은 집단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토론에 참여하면서 구체적 일상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 되기’ 를 경험하는 것이다(김경애, 2006). 결과적으로 학습동아리가 활성화될 때,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커지고, 결국 지역정체성형성,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자본 강화로 이어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박상옥, 2014).

Ⅲ. 연구방법

1. 연구사례 : ‘한라독서회’

책을 매개로 학습망을 조직하여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계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2011년 성인학습동아리 ‘한라독서회’를 결성하였다. 한라독서회는 한라도서관이 독서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독서회이기 때문에, 자율과 타율이 섞인 반자발적인 성격을 갖는다.

기관 중심의 경우 비교적 일정한 계획 아래 육성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라독서회의 경우 도서관 측에서 모임장소를 제공하고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문학기행, 글쓰기 특강, 책축제 등)을 지원한다. 도서관이 주최가 되어 결성이 되었지만 조직과 운영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립 되었을 때부터 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운영의 틀이나 격식을 갖추기 위한 회칙도 정해졌으며, 현재 5대째 회장단이 맡아서 활동하고 있다.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 참여의 폭이 다양하며, 남자보다 여자비율이 높고 직장인 보다 주부가 많다. 주부이며서도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어, 예를 들어, 동화구연강사, 역사과외강사, 영어과외강사, 독서지도사, NI지도사, 돌봄 교사, 전업주부 등 직업군이 다양하다. 한라독서회 창립 시는 12명~13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토론활동, 시낭송, 지역아동센터 책읽어주기 활동 등으로 전개되었고 2016년부터는 도내 인문기행, 도외 인문기행을 직접 기획하여 인문학 역사지와 저자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도서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엮어진 ‘글마을’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재정은 구성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체회원은 38명이며 회비는 일반회원이 8만원 신입회원이 10만원을 낸다. 독서토론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이루어지면 상반기와 하반기 초에 밴드를 통해 회원들이 추천하는 책을 토대로 하여 함께 읽고 토론할 책을 선정하고 그와 동시에 자유롭게 발제자를 정한다.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한라독서회’ 활동에 출석율이 좋고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진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라독서회’ 임원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제주도 한라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라독서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며 참여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이면서 전문적인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 이들은 독서회 활동에서 책 읽기를 통하여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책에서 주는 교훈과 토론 참여자들의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유익한 배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현황은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참여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름은 모두 익명처리하였다.

<표 III-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나이	한라독서회 참여연수	직업
참여자 A	여	49	8	역사과외지도, 주부
참여자 B	여	48	8	초등과외학습지도, 주부
참여자 C	여	54	6	독서논술지도, NI 강사, 주부
참여자 D	여	48	2	주부
참여자 E	여	46	6	독서지도사, NI 강사
참여자 F	여	51	6	주부
참여자 G	여	51	6	영어과외지도
참여자 H	여	52	8	한자강사

연구 참여자 A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이자 주부이다. 초등학교 사서모임에서 만나게 된 학부모의 소개로 독서회의 회원모집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다. 평소 책 한권 정도 끝까지 읽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암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B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과외지도를 하고 있는 강사이자 주부이다. 한 가정 안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YWCA에서 실시하는 수학기초 강사 양성과정을 받은 후 공부방에서 학생들에게 수학과 주산을 가르치게 되었다. 양육과 가사일, 경제활동 등으로 바빴던 삶에서 벗어나 책을 통해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2013년에 독서회에 가입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독서지도와 NI강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부이기도 하다.. 독서지도활동을 하다가 NI강사 양성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평소 책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만났던 학부모의 소개로 2011년에 한라독서회에 들어왔다. 책을 통해 긍정마인드를 갖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D는 전업주부이다. 두 딸의 엄마로서 아이들을 위한 책읽기에 관심이 많았었고 지인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다. 남편의 직장으로 인하여 현재는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이사간 곳에서도 독서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독서지도와 NI강사활동을 하고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지친 상황에서 다음 카페에서 독서회의 모집 안내를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 독서회를 통하여 인생 선배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위안을 받았고 독후감 쓰기와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어른신들에게 책읽어 주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문활용교육을 받고 NI강사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F는 영어를 가르치는 과외강사이자 주부이다. 항상 책읽기를 좋아하는 편이었고 혼자 읽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친구의 권유로 독서회에 들어왔다. 독서회를 통해 평소 관심이 적었던 문학, 역사에 대한 다양한 책까지 읽게 되고 많은 양의 독서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독서회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 자신의 삶에 선택과 집중을 잘하려고 노력한다.

연구 참여자 G는 전업주부이다. ‘나는 누구인가’ 같은 실존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고 책을 읽을 때 자신과 일치하는 표현을 보면 흥분되고 설레인다. 책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토론모임을 찾았다.

연구 참여자 H는 한자강사이자 주부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다

가 ‘한라독서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평소 잘 적응을 못하거나 어색함을 타는 회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독서회의 가족으로써 회원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노력하였다. 책을 통한 즐거움을 항상 느끼고 있지만 특히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은 후 연극을 하면서 책의 의미를 공감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3. 연구절차

학습동아리 질적사례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라독서회’에 관한 문헌조사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참여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가.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도입하여, 한라독서회에 대한 문서 및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로, ‘한라독서회’ 회원들의 활동내용과 경험 및 활동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수집하였다. 문서는 대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다음 카페와 밴드에 남아 있는 활동에 대한 기록과 봉사 활동 및 인문 기행의 경험을 후기담으로 모아둔 글모음집, 토론을 위한 발제 내용물, 회의 내용물 등을 수집하였다. 이외에 심층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기록물을 추가적으로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장 중요한 자료수집 방법이기도 하다. 심층면담에서는 주로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시민성을 발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한라독서회’의 활동 경력이 오래되고 다양한 경험을 한 회원 8명을 선정하였다. 독서회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해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임원의 추천도 받았다. 독서회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경험내용, 그 경험들을 통한 의식의 변화 및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등

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우선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을 요청하였다. 면담은 일대일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로 거주지 근처의 커피숍이나 도서관에서 행해졌다. 연구자가 '한라독서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연구 참여자의 조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심층면담의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심층면담 일정 및 내용

면담대상자	인 터 뷰			면 담 내 용
	횟 수	일 자	시 간	
연구참여자 A	3회	2019.2.15	2시간	- 독서회 가입 동기, 목적 - 회원들간의 관계 - 활동의 좋은 점, 힘든 점
		2019.3.21	50분	
		2019.3.25	1시간	
연구참여자 B	2회	2019.3.20	1시간	- 활동의 좋은 점, 힘든 점
		2019.3.31	2시간	
연구참여자 C	1회	2019.03.29	1시간	- 힘들 때 극복 방법
연구참여자 D	2회	2019.04.02	1시간	- 활동 후 달라진 점
		2019.04.03	50분	
연구참여자 E	2회	2019.03.14	1시간	- 독서회 활동의 의미 - 독서회와 지역사회 관계
		2019.04.06	1시간	
연구참여자 F	1회	2019.03.14	2시간	
연구참여자 G	2회	2019.03.26	1시간	
		2019.04.04	1시간	
연구참여자 H	1회	2019.04.12	2시간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과 면담내용 녹음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였다. 면담에 있어서는, 반구조화된 면담과 비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했다. 반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미리 만들어진 질문을 순서대로 진행하였고, 면담 대상자에게 면담지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연구내용과 목적에 맞게 질문지를 준비하여 면담시 이용하였고 계속적으로 수정, 추가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의견, 느낌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질문의 순서, 질문의 폭과 범위, 속도 등을 유연하게 조절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면담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개방적인 질문을 했다. 녹음과 동시에 면담내용을 연구노트에 간략하게 필기하였다. 1차면담 후 분석하면서 부족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2차, 3차 전화면담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2016년부터 ‘한라독서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회의, 토론, 봉사활동, 인문기행 등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활동 현장에서의 생생한 느낌을 통한 시민성 학습의 과정과 맥락을 발견하기 위하여 직접 활동에 참여하면서 내부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고 ‘낯설게 보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참여 관찰에서는 토론의 내용, 분위기, 현재 독서회의 주요 이슈 등을 기록하였다. 관찰된 내용은 심층면담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나. 자료 분석

연구를 위해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현상 자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높여준다(Merriam, 2009). 질적 자료 분석은 데이터 수집, 해석,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Creswell, 2007, 재인용). 연구자도 위와 같은 질적 사례연구 분석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한라독서회의 활동내용과 활동에서 나타난 시민성, 시민성이 나타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수집, 심층면담자료, 참여관찰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확보한 문서 및 1차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차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을 포함한 분석적 질문을 하는 것으로써 수집과정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코딩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어휘, 장면 등을 살펴보고 조사하여 통계 내어 일정한 코드를 줌으로써 자료를 보다 체계화하는 과정적 작업을 말한다(엄채운, 2012, 재인용).

우선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한라독서회’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했던 다음카페와 밴드의 기록물, 글모음집, 토론발제 내용물, 회의 기록물, 면담 기록물, 참여관찰 기록물을 분석하였고,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자료를 정독한 후 활동내용들을 범주화하였고 범주화된 내용들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학습을 발견하고자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력한 후 정독하였다.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자의 생각을 여백에 정리해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서로 연관성을 갖는 자료를 분류, 정리하고 범주화 하였다.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라독서회’ 활동의 의미에 주목하면서 어떤 맥락에서 시민성 학습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면담, 참여관찰을 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자료에 반복되는 단어 또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따로 묶어 상위범주를 만들었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면담으로 보충하였다.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과 결론이 면담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검토 후 분석시 사용된 면담 내용이나 해석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을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다루고자 하였다. 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회원들은 ‘시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식에 해당하는 의미를 부여하려 하였다.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해석하기이다. 연구자의 개인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앞서 고찰했던 시민성의 유형과 시민성 학습의 유형들에 비추어 ‘한라독서회’ 활동에 나타난 시민성 학습과 시민성 학습의 나타난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IV. ‘한라독서회’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1. ‘한라독서회’의 활동

‘한라독서회’의 활동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상활동과, 토론활동 이외에 인문기행, 봉사활동, 책축제 참여, 시낭송으로 이루어진 특별활동과 토론 등의 활동이 끝난후 뒷풀이로 이루어지는 비공식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라독서회’의 활동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 ‘한라독서회’의 일상활동

‘한라독서회’의 일상활동으로는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한라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행해진다.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초에 책선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발제자도 미리 정해진다. 발제자가 책의 저자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해오고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준비해 온다. 책의 내용에 따라 책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조사해오기도 한다. 준비해 온 주제 이외에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주제를 정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주제토론으로 이어진다. 토론은 2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발언권은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독서토론활동은 서로의 생각이 만나고 부딪히는 가운데 내 안의 생각의 틀을 다시 고쳐보게 만들고, 지적기반에 근거하여 특정 관점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상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황의 의미를 재해석해 가면서 나름의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양은아, 2009) 의미 있는 장이다.

나. ‘한라독서회’의 특별활동

토론활동 이외 특별활동으로는 봉사활동, 책축제, 인문기행, 시낭송 등이 있

다. 봉사활동은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으로써 노형에 있는 빙새기 지역아동 센터에 가서 책읽어주기 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노인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번 하고 있다. 또한 한라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책축제에 참가하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책읽어주기 봉사활동과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인문기행은 도내, 도외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내 인문기행은 제주지역의 오름, 4,3유적지, 미술관, 생태공원 등을 탐방하면서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지역의 역사, 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다. 도내 인문기행으로, 2018년에는 예로부터 선비와 문인들이 즐겨 찾았던 방선문을 탐방하여 주변의 기암들과 수목으로 아름답게 어우러진 올레길을 회원들과 걸으면서 지역의 문화 체험의 시간을 가졌고, 2019년에는 제주도립미술관을 방문해서 그림을 구경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도서관 벤치에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육아문제 등 현재 자신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조언과 격려가 오가는 독서토론과 또 다른 소통의 시간이다. 도외 인문기행으로, 2018년에는 통영을 방문하여, 이순신 장군이 머물면서 지휘했던 세병관과 박경리 문학관,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 등 여러 곳을 견학했고, 2019년에는 순천을 찾아 낙안읍성, 순천만국가정원, 선암사, 순천문학관, 그림책 도서관 등을 방문하였다.

다. ‘한라독서회’의 비공식활동

비공식 활동으로는 토론이 끝난 후 뒷풀이가 있다. 토론 시간은 항상 시간이 짧다. 정해진 시간 내에 대부분의 회원들이 토론에 동참하여 자신의 의견을 모두 꺼내 놓고 소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난 후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토론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뒷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때는 공식적인 토론 활동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가족사, 개인적인 고민, 독서회의 아쉬운 점 등등의 이야기가 이루어진다. 또 다른 삶의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들을 풀어 헤쳐 공유하고 위로하며 또 비슷한 경험담을 꺼내어 해결방안까지 도출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장면도 많이 일

어난다. 물론 토론활동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좀 더 속내 깊은 이야기들은 비공식적인 뒷풀이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회원들 간의 고민들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이다. 토론활동이 공식적인 만남이라면 뒷풀이는 비공식적 만남으로써 토론 활동에서 볼 수 없었던 회원의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다. ‘한라독서회’ 활동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 ‘한라독서회’의 활동

구 분	내 용
‘한라독서회’의 일상 활동	· 토론
‘한라독서회’의 특별 활동	· 인문기행(도내·도외) · 봉사활동(다음 노인요양원) · 책축제(한라도서관내) · 시낭송(한라도서관내)
‘한라독서회’의 비공식 활동	· 활동이 끝난 후의 뒷풀이

2. ‘한라독서회’ 활동 참여에 나타난 시민성

이 연구는 인문학 학습동아리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시민성과 그 시민성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한라독서회’가 발간한 글모음집, 다음 카페와 밴드의 기록물, 회의 기록물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회원들의 활동 경험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시민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한라독서회’의 활동 내용과 활동의 경험을 통해 나타난 시민성을 파악한 결과, 시민성 요소 중에 주체의식, 다양성의 존중, 비판의식, 공동체 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 주체성 획득

1) 나의 삶에서의 주체성 획득

‘한라독서회’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나타난 시민성을 탐색한 결과 주체의식을 학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를 고민하고 실천했던 경험들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하고(양은아, 2011), 자신의 모습을 사회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독서회 회원들은 인문학습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에서 자신의 삶과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주체’로 변해갔다.

연구 참여자 A는 책 한권 읽는 것에 자신이 있어 편하게 독서를 하려는 생각에서 독서회에 가입했다. 가볍게 시작한 ‘한라독서회’ 활동 과정에서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는다. 토론활동과 동아리 운영활동 속에서 수동적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부모님, 형제, 친구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역할에 익숙해진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하는 편으로 늘 ‘에스맨’이었다. 육남매의 다섯째이지만 형편상 큰 딸 역할을 해야 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로운 언니를 보면서 자라다보니 상황에 순응적이고, 사회생활에서도 매사에 거부하지 않는 성격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면서 살아왔음을 깨닫고 그 틀을 깨고 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가 노력한다.

독서회 임원활동을 하면서 임원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문득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적극적이고 책임기, 글쓰기를 다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늘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살아왔더라고요(연구 참여자 A, 2019, 3. 21).

육남매의 다섯째였는데, 책을 좋아했지만, 언니가 사는 책만을 보아야 하고 자신이 원해서 사는 책은 없었어요. 육지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접어야 하고, 그 이후로 사업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되었죠. 방송대에 들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결혼 때문에 공부도 포기해야 했어요. 내가 해보고 싶어서 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이젠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려고요(연구 참여자 A, 2019.3.21).

연구 참여자 C는 ‘세다’, ‘강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했다. 그런 자신에 대한 반응에 태연한 척 포장하기도 했다. 반복되는 회원들과의 충돌을 통해 처음에 부딪혔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회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맺음에 대한 나름의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려 한다.

어느 날 토론 중에 사전 양해도 없이 도서관 관계자가 들어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분위기가 싸 해졌지, 그 후 부드럽게 이야기 할 걸이라는 후회가 들었지. (연구 참여자 C, 2019. 3. 21).

나는 자존심은 외면에서 바라보는 나이고, 자존감은 내면에서 바라보는 나라고 생각하는데 늘 헛갈렸어,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다고 착한 사람이 될 생각은 없어. 굳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고 싶지는 않아. 객관적, 보편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연구 참여자 C, 2019.3.29).

자신만의 고유의 생각을 갖고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원만히 하게 되기까지는 책으로부터의 위안과 배움이 있었다. ‘뮤탄트’를 읽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삶의 맥락으로부터 터져 나온 ‘왜’ 라는 물음은 ‘책읽기’와 토론활동에 참여하면서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고 있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지나간 일들로 배워야만 했다. 내가 남을 받아
들이고 남한테 진실해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받아 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

-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 중에서-

2)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

‘한라독서회’ 활동 속에서 자신의 일상 모습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
람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
에 대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된다.

‘열두발자국’ 을 읽으면서 나의 성향을 알게 되었어, 이 책에서는 계
획을 세우긴 하나 너무 자세한 계획은 짜지 말라고 해, 우선 시도를 해
보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 실은 내 성격은 계획을 세워버리면
다른 새로운 시도는 거의 해보지 않는 편이지(연구 참여자 A, 3,25).

삶을 대함에 있어서 늘 수동적이었던 연구 참여자 A는 예전부터 글을 쓰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쓰는 것이 두
려워서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독서회 활동을 통해 느꼈던
기쁨, 보람 등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용기를 갖게 하였다. 도서관 프
로그램의 글쓰기 과정에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5개의 모임에서 총무
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처음으로 글쓰기 모임의 회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라독서회’ 활동 속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되고, 또한 다른 활동에 대
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이다.

원래는 쓰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싫어했던 것은 아닌데...,
글쓰기에 참여 할까 말까 했는데 하기로 했어요, 한편 쓰고 나니 할만
하네요, 마음을 풀어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회장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서툴겠지만 열심히 해볼려구요(연구 참여자
A, 2019,3,25).

씩들은 여름의 비바람, 더위와 부딪치면서 가을에 결실을 맺는다.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할 때다. 글쓰기의 싹을 피우고 싶은 맘은 있었지만 못한다, 두렵다, 어렵다는 이유로 꿈꿨다 숨어 있었다. 2019년 봄을 시작으로 새로운 싹을 피우는 일(회장, 글쓰기)을 해보고자 한다.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도('글수다' 의 밴드에 올린 내용을 연구 참여자 A를 통해 전달해 받고 발췌함).

3) '한라독서회'의 지킴이로

'한라독서회'의 회원들은 독서회 운영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독서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의식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과외학습 선생님이로서 그리고 딸로서의 역할로 고달픈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나만 이런 걸까'라는 생각에 다른 세계를 접하고 싶어 독서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선배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격려와 위로는 삶을 지탱해 가는 에너지가 되었고,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독서회의 회장 역할을 맡게 된다. 바쁜 일상 탓에 책을 다 못 읽고 오는 일도 종종 발생하여 스스로를 자책한 적도 많았지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독서회 모임에 거의 빠진 적이 없는 연구 참여자 B는 설령 책을 못 읽더라도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경험과 느낌을 듣는 것만이라도 배울만한 것이 있다고 믿고, 책을 못 읽는 회원들도 마음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자꾸 독려한다. 어떻게든 독서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회장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나 회장할 땐 마음이 짝렸어, 회장이 책을 잘 읽지 못하고 와서, 우리 독서 모임은 다 자기 전문적이 일을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야, 책 읽은 사람만 나오세요 라고 하면 2~3명 밖에 안 나올거야, 회장은 회원들이 자꾸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책을 못 읽어도 나오세요 같이 듣게요 라고 해야 공유되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안 오다보면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어(연구 참여자 B, 2019.3.20).

연구 참여자 E는 육아와 일로 삶에 지쳤을 때 독서회 언니들과의 수다가 큰 위안이 되었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만의 고통이 아니었음을 독서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되어 위안을 받았고, 각자의 삶의 문제를 돌파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그 위안으로 인한 자신감은 독서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어 갔다.

총무의 역할을 2번 했는데 2016년에 처음으로 인문기행을 도외로 갔어요, 책을 통해서만 만났던 작가들이 살았던 곳, 운동주 문학관, 또는 서울 도서관 등을 실제로 견학했는데 그 기행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회원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었어요(연구 참여자 E, 2019,3,14).

연구 참여자 A는 처음 독서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자신보다 주변사람들이 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조용히 응원하면서 따라가는 편이었다.

창립 당시 들어왔을 때는 저는 그냥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때 회장님은 포용력도 있고 책 선정도 잘했고, 총무님은 활동적이었고, 저는 그냥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늘 자신감이 없었죠(연구 참여자 A, 2019,2,25).

그녀는 몇 년 전에 서기로써 활동할 때는 독서회 탈퇴의 위기도 있었다. 가볍게 독서토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치열하게 토론하자는 신입회원의 요구에 거부감이 들었고 나름 정리해 올린 내용들에 대해 세세하게 지적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탈퇴할 생각이었다.

집행부의 서기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한 회원이 토론모임에 대한 요구가 많은 편이었는데, 예를 들어 찬반 토론으로 가자, 독서록을 써야 한다 등 독서활동에 대한 의견을 너무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바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서기가 나인데 자기가 나름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 버리고, 기본이 상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었지요(연구 참여자 A, 2019, 2,25).

그러나 몇 년 후 다시 총무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 당시 신입회원의 요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방향에서 독서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총무가 된 이상 제대로 된 임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독서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독서회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게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때는 회원들이 아주 많아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때 두 팀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는 팀과 즐기며 하는 팀으로 가면 회원들의 욕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어서 더 좋았을 거예요 (연구 참여자 A, 2019.2.25).

1년 총무를 했는데 요즘 밴드에 답글 횟수가 줄어들고, 또 지난해 열심히 활동했던 두 분의 젊은 회원들이 빠지게 되면서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행부가 아니었을 때는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연구 참여자 A, 2019.2.25).

‘한라독서회’ 회원들은 활동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주어진 역할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수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을 꾸려가는 주체로서의 삶의 토대가 되었다.

나. 다양성의 존중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두 번째 시민성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었다. 이는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회원들과의 충돌 속에서 서로 같이 하는 가치를 내면화 하고 있었다.

1) 다름에 대한 이해

독서회는 삶의 맥락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활동에서는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때는 가끔 예기치 못한 의견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리고 충돌 후 자신이 대처한 행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함께 활동함에 필요한 태도들을 학습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 C는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평소 ‘세다’, ‘강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편했지만 이제는 다른 입장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다. 그런 계속되는 노력에 조금씩 충돌은 적어지고 자신도 부드러워져감을 느꼈다.

모가 난 성격이 포기와 체념으로 돌아섰어, 처음에 부딪혔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지, 양쪽을 다 살피게 되는 습관이 생기면서 부드러워졌지(연구 참여자 C, 2019.3.29).

연구참여자 F는 평소 질문이 많은 편이었고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지 의견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다. 그러한 이유로 ‘한라독서회’를 찾았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뭔가를 배우고 깨우침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독서토론 때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강한 어투로 대응하는 분위기에 당황했다. 그래서 독서회에 일부러 빠진 적도 있고 다른 독서모임을 찾아 보기도 했다. 그런 반복되는 경험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의 필요한 태도와 말투 등을 의사소통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평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싶었지, 근데 막상 독서토론을 들어오니 자기의 의견이 센 사람들이 많은 거야, 가끔은 상처도 받았지, 그래서 다른 토론 모임도 참석해 보았는데 다 똑같더라구,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방식이 있고, 나는 나의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바꾸었더니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유가 생기더라(연구 참여자 F, 2019.3.26).

독서토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 안해, 지금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포용하기로 했어, 다른 의견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연구 참여자 F, 2019.4.4).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그 다름을 인정해가는 방식을 스스로 터득해 감에 따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예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김을 느끼고 사회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여러 입장에 있어서 바라보는 일상 속의 습관은 시민성 형성에 토대가 된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어서 독서회에 가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었어, 근데 지금의 나는 예전과 달라졌어, 하나의 바램은 의견이 나왔을 때 '다 좋아요'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는 다양한 생각이 나왔으면 좋겠어(연구 참여자 F, 2019. 3.26).

2) 다름에 대한 갈등

독서회의 성격에 대한 회원간의 의견은 분분하다. 순수하게 독서 토론의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고 토론 외의 활동을 하다 보니 토론 활동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도서관과의 관계되는 활동을 줄이고, 보다 깊고 심도있는 토론활동이 되기 위한 토론 기법과 회의 방식, 책 선정, 독후감 쓰기 등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쪽은 도서관의 지원으로 독서회에서 혜택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습에 필요한 자원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 장소 등 필요한 물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서관 중심의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되고,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회원들은 자신의 재능 개발, 전문가로서의 도약으로서의 계기도 되는 경우가 있어 도서관과 협력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위와 같은 갈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독서회에 나오지 않고 탈퇴하는 회원들도 가끔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의 차이에 감정이 상하고 어색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어떤 책이 너무 좋아서 추천했는데 대부분이 읽고 오지 않는 거야, 왜 읽지 않을까, 이 독서모임은 원래 도서관 중심의 모임이었던 거지, 활동중심적인 거였어, 독서토론이 중심이기보다(연구 참여자 G, 2019.3.14),

몇몇에게는 책을 끝까지 읽고 와야 한다고 했어, 문장에서만이 알아낼 수 있는 느낌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 의견이 잘 해진 것 같지 않아(연구 참여자 G, 2019.3.14),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도 도서관 측에서 먼저 요구한 거지, 지금은 회장님이 추천한 곳에서 봉사활동 하고 있지만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외형적인 행사준비가 아니라 본질적인 독서모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야(연구 참여자 G, 2019, 3.14),

3) 다름을 조율하고 수용하기

다름의 차이로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활동 과정에서 자신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피하기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버릇이 생기고, 드러나는 감정에 쉽게 흥분하거나 표면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다가 가면 좋을까’하는 나름의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다(양은아, 2010). 점점 독서회라는 공동체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방법도 터득해갔다.

처음엔 의견이 다르면 너무 세게 반응이 나와서 힘들었어, 그래서 일부러 독서회 모임에 안 갔을 때도 있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지, 나름 귀기울여 들으면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도 들을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좀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했지(연구 참여자 F, 2019, 4.4),

도서관과 관계된 여러 행사에 참가하면서 도서관내에 있는 독서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서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해야한다는 의견과 행사에 참가하는 활동들을 줄이고 오로지 독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눈다. 그런 의견의

대립 속에서 행사 참가의 찬성 측의 의견의 정당성과 반대 측의 입장에서 각각 정당한 논리가 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의견들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가기 위한 방법들이 경험되고 있었다.

책 축제에도 참가해야 한다면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 참가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은 토론할 장소도 제공해 주고 인문기행 때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서관의 일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참가하지 말자는 쪽의 입장은 우리 부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축제때 하고 있는 활동을 다른 부스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행사라는 것이지,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을 다 살펴 피게 되는 습관이 생겼어(연구 참여자 C, 2019.3.29).

학습동아리에서는 서로 다른 경험, 역량, 견해 등이 학습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나누고 공유하는 ‘대화’의 방식으로 학습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지식과 견해가 존중받는다.

다. 비판적 의식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세 번째 시민성은 비판의식이다. 활동의 경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낯설게 보기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1) ‘나’를 뛰어넘기

책 한권을 다 읽는다는 것은 쉬운 일 같으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도 책 한권 마스트 하는 것 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독서회에 들어 온 연구 참여자 A에게 책을 읽는 것이란 남에게 지식자랑을 위함도 있었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절실한 목적을 위한 독서회 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적었다. 하지만 임원이 된 후 독서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기존의 독서에 대한 자세와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동적인 책읽기와 토론활동에서 능동적으로 변모하면서 기존의 ‘나’를 뛰어넘는 능동적인 ‘나’가 되고 있었다.

예전에 저도 토론할 책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독서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면 꼭 읽어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이해 안가고, 서기가 토론내용을 정리해 밴드에 올리면 책을 읽지 않고서는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읽어야 댓글도 달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독서 후기도 검색해보고 토론을 했던 안했던 간에, 저는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점점 재미있어요(연구 참여자 A, 2019.3.25).

인문학습은 일상에 질문을 던지고 학습을 통해 얻은 새로운 자극을 내 삶에 녹이는 삶을 살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는가’와 같은 비판적 의식을 갖게 한다(양은아, 2010).

2) 낮설게 바라보기

연구 참여자 H는 도서관의 운영위원들과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다. 타 지역의 역사의 현장을 견학하면서 책으로만 느꼈던 앞서서 살았던 이들의 서글픔과 아픔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 지역의 문학을 자랑스럽게 여겨 작가의 문학관을 건립하여 보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견학한 지역의 도서관이 시민 참여형 도서관이어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독서문화를 지원하고 도민의 책 읽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라도서관에서의 독서회 활동의 방향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박 3일간 한라도서관 운영위원님들과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었다.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보러 갔다가 그 후 태백산맥 문학과 조정래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설 태백산맥은 여순사건이 있었던 1948년 늦가을 벌교 포구를 배경으로 재석 산자락에 자리 잡은 현부자네 제각 부근에서부터 시작하여 빨치산 토벌작전이 끝나가던 1953년 늦은 가을 어느 날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픈 과거를 반추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벌교에 가서 돈 자랑, 주먹자랑 하지 말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다.

“작가는 주장하거나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역사소설이면서 허구와 사실이 공존하면서 1980년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백산맥의 탄생과정을 보면서 전남지역에서 살아있는 분의 문학관을 건립하고 보존하는 것을 보고 제주도 문화관의 나아가야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게 해준 공간이다.

..... (증략)

드디어 보고 싶은 전남도서관에 도착했다. 전국 최초의 책모양, 솟은 지붕인 도서관, 남도 대표작가들로 되어있는 책기둥, 훈민정음, 서음, 문자, 기호가 새겨진 도서관이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도서관으로 지역대표 도서관의 역할과 소외계층 독서문화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도민의 책 읽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편백 나무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면과 800대의 문학의 공간을 따로 마련한 것, 1:1책 교환코너가 이색적이었다. 견학 후 발전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꿈꾸는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한 시간은 삶의 추억과 기억을 지니면서 자신을 성장 시킨 시간이었다.

‘여행의 지혜를 얻은 남도여행’ 글모음에서 발췌

3)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무심코 지났던 사회 현상들이 독서회의 책읽기와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들의 문제로 성큼 다가설 때가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토론활동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과 입장들을 들으면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스스로 나오게 된다.

연구 참여자 C는 「검은 강아지」를 읽으면서 주인을 잃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강아지의 처지에 연민을 갖게 되고 이렇게 버려지는 강아지들이 생기는 문제의 원인은 ‘교육’에 있다고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린다. 반려동물을 키움에 앞서 어려움을 사전에 이해시키고 그러함에도 키울 것인가? 어떻게 키

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사전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우리 남한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을 때 통일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이런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도 많이 변화해 왔음을 느낀다. 이렇게 독서회 내에서의 책 읽기와 토론을 통해 나 이외의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까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검은 강아지’는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인데 버려진 강아지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길거리의 강아지와 같이 생활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불쌍했어,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지? 결국은 교육의 문제였어, 데려올 때의 마음가짐,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점, 그런 상황을 이해하더라도 키울 것인가 등의 사전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던 거야(연구 참여자 C, 2019.3.29).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라는 책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공산국가에서는 개인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 학생들의 등하교 길, 연애방법 등이 똑같았어, 제한적이지만 휴대폰도 자유롭게 쓰고 있고, 다르지 않음을 느꼈을 때 통일이 멀지 않음을 느꼈을 때가 있었어(연구 참여자 C, 2019.3.29).

평범한 주부인 연구 참여자 F는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책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가끔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맞는 구절을 만날 때는 희열을 느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철학서, 인문서, 불교서적 등을 찾았다. 관점의 차이에 따라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름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싶어서 한라독서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존재론적 질문이 이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빈곤의 연대기」를 읽으면서 빈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는 가진자,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면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아 간다.

‘빈곤의 연대기’ 라는 책을 읽으면서 국민이 무능하면 나라가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국민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겨,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면 당장 정부를 비판하지, 특히 부를 갖고 있는 부동산업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더 비판을 하지, 자기네가 비축해 둔 자본이 있음에도 손해 안보려고 정부를 비난하잖아, 근데 집이 없는 무주택자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신이 가진 파이를 좀 나눠 쓴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부가 양극화 되버리면 사회는 모두가 힘들어져, 정치인도 그렇잖아,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하지(연구 참여자 F, 2019.4.4),

라. 공동체 의식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난 네 번째 시민성은 공동체 의식이다. 그저 책을 읽고 싶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 온 계기가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자기중심주의에서 공동체를 위한 삶의 양식으로 자신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 감(양은아, 2010)을 한라독서회의 회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

1) ‘혼자가 아니야’

인문학습을 통해 고달픈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정서적 동질감과 동아리 활동 참여에서 회원들과 나누었던 동료애는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았던 시각과 사고를 ‘우리’라는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사고의 전환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봉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일을 찾아야 하고 아이를 위해 학교, 학원을 쫓다 다녀야 하며 시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계신 80된 친정 부모님을 돌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 B는 ‘한라독서회’를 만났다. 독서회 회원들

의 이야기 속에서 삶의 고달픔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연구 참여자 B는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조언을 아끼지 않는 회원들에게 동료애를 느끼고 위안을 받고 그것이 삶의 힘이 되어갔다.

학원과 집만을 왔다갔다 항상 일의 양은 늘고 힘들었고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었어. 그때 독서회는 나에게 일탈이었어. 학원관계도 아닌, 어떤 이익관계도 아닌 정서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소였지. 그 시기에 비슷한 연령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연구 참여자 B, 2019.3.20).

그때 들어왔던 독서회는 너무 좋았어. 토론이 끝나 밥이나 커피 마시러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한 언니들 자신과 아이들 이야기, 일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수다 떠는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더라구(연구 참여자 B, 2019.3.31).

연구 참여자 B는 어릴 때 소아마비에 걸린 언니로 인하여 제대로 하고 싶은 것을 시원스레 표현 하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 언니를 위해 여러 병원 전전하며 애쓰던 아버지, 그 와중에 사업에 실패해 더 힘들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

성인이 되어 아버지와 같이 삶의 버거움에 힘들어 하는 연구 참여자 B에게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시낭송은 큰 감동이였다. 「사평역에서」라는 시낭송을 들으면서 힘든 세상살이 하는 서민들의 고달픔이 자신의 고달픔을 말해주는 것 같아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시는 그가 군대가기 전 20대에 시를 쓰고 갔다 와서 그 시를 작품을 내고 당선, 등단되었는데 그 시는 막차를 기다리는 장면을 그린 시였어. 우리 독서회원이 낭독을 하면서 마음의 정서를 깊이 공유할 수 있었어. 자기 삶에 빚대어서 공감이 되었지(연구 참여자 B, 2019.3.20).

마지막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는 사람들, 간단에 고향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긴 병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지막 차를 기다리는데 눈이 내려 차가 지연되니 차는 오지 않고 난로불을 쬐면서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 지난은 과거를 회상하거나 거친 숨을 몰아 쉬면서 힘들게 몸을 지탱하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에 공감이 깊어(연구 참여자 B, 2019.3.20.).

어떤 특정한 물질적 이익없이 이루어지는 인문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배우며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가치를 느끼게 된다(양은아, 2010).

독서회 활동을 통해 힘들 때 그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사회 곳곳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 각계 각층의 우리회원 선생님들을 통해 많이 배워, 물질이 아닌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독서회는 정으로 유지되어 왔어, 한 회원이 빵을 가져와 나눠먹기도 하고 나물을 캐어 와서 나누어 가져가기도 하고(연구 참여자 B, 2019. 4.7).

연구 참여자B가 경험했던 회원들의 격려와 위안, 그리고 인문학습과정에서 느꼈던 서민들의 정서적 동질감은 ‘한라독서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도외 인문기행 준비가 쉽지 않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지, 무엇보다 부듯했던 것은 그때의 일정을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끼리 짜서 갔다 왔다는 사실이야, 버스 안에서 가고 있는 곳에 대한 준비된 브리핑을 하고, 회원들끼리더 친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지(연구 참여자 B, 2019. 4.7).

2) 소속감 갖기

독서회 회원들은 활동을 통하여 ‘한라독서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역사의 아픔에 대한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H는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6년을 활동하면서 동화책에 대한 관

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책 읽어주는 엄마의 활동을 초등학교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엄마들의 사서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 후 한라독서회의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입하였다. 회장을 뽑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 자신이 회장으로 나서게 된다. 되도록이면 사람에 대해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성향으로 독서회를 부드럽게 운영을 하고자 하였다. 소외되는 회원들에게는 좀 더 잘 챙겨주고자 했고 그들이 독서회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 받거나 서평전을 보거나 또는 회원들에게 보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서 다 꺼내 보게 하면서 같이 책 선정을 했던 적도 있어, 자기의 이야기를 쓰도록 노트를 다 사 주기도 했었지, 연말에는 회원들에게 일기장을 선물해주기도 했어, 같이 뭔가를 하면 동질감을 통한 회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존재감을 갖게 할 수 있어 독서회의 분위기가 항상 좋았어(연구 참여자 H, 2019.4.12).

특히 독서회에 들어온 회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노력을 했어, 그래서 그 땐 분위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애,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독서회에서 어색해 하는 회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애(연구 참여자 H, 2019.4.12.).

회원들 간의 관심과 배려는 독서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였고, 인문기행을 통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

‘한라독서회’에서는 일 년에 한번 도내 인문기행을 한다. 실내에서만 하던 독서회의 모임을 밖에서 하는 것이다. 지역의 유적지, 생태공원, 오름, 미술관 등을 탐방하면서 지역에 대해 학습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특히 4·3유적지를 방문했을 때는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아픔을 공유하고 후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첫 번째 장소는 너븐숭이 4·3기념관이었다. 기념관이 있는 이 동백마을에서는 4·3사건때 3백여명 이상 되는 사망자가 있었고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되는 장소였다. 기념관 유적지를 따라 오솔길과 기념과, 애기무덤이 도로를 따라 쪽 위치하고 있었다. 기념관 입구에 강요배 화백이 그린 커다란 그림과 마지막에 천정에서부터 길게 드리워진 검정색 천에 쓰여진 사망자들의 나열만으로도 그 사건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사망자들의 나이에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심심잡게 눈에 띄었고, 그런 아이들이 강화백의 그림 속 모습처럼 엄마 젖을 빨며 울고 있었을 아비규환의 현상이 상상되니, 오싹해지는 느낌이 밀려왔다. 나의 애도가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게 한다.

‘동백동산을 다녀오고 나서’ 글마을에서 발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와 그들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이병준 외, 2008).

3)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공적감각 획득

‘한라독서회’ 회원들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지역주민들의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B는 단순히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 가족과 일의 공간에서 탈출하고 싶어 찾아 갔던 독서회에서 그녀는 ‘왜 봉사를 할까?’ 라는 질문에서 역으로 봉사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감사함을 배우고, 더 나아가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하나하나의 힘이 보태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체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주민들의 연대의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그 전에는 시야가 가족, 친구 위주로 생각했어, 편협된 사고도 있었지, 정치는 어려워서 마음을 닫아 버리고 세월호는 왜 싸워야 해? 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있었어, 처음에는 왜 봉사도 해야 돼? 책만 읽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봉사활동을 나가서 책을 읽어 드린 후 박수치고 웃어주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보람이 있었어, 오히려 부모님 같은 생각도 들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봉사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이 있었어(연구 참여자 B, 2019.4.7).

봉사하면서 이런 힘이 모여져서 사회가 돌아가는구나, 그럼 세월호, 촛불운동에 나도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되었지,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 사회참여 할 생각도 생기고, 실제 시청광장에 가서 시위참여도 했지(연구 참여자 B, 2019.4.7).

회원들은 독서회 활동에서 배워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과 나누고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우리 독서 모임이 2주만에 만나 책읽고 싹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등 봉사등 기행이든 좀 더 활동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사회에 도움도 되고 우리 역량도 커갈 수 있죠, 토론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만한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점점 회원도 떨어질 것예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우리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끼리 단합도 될 수도 있고(연구 참여자 E, 2019. 4.6).

4) 나눔의 실천

토론활동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체험들은 독서회에만 머무르지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활용되고 있었다.

처음 창립되었을 때 한라도서관의 권유로 신제주에 있는 빙새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책읽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다올’이라는 노인요양원에 가서 한달에 한번 책읽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참여는 자발적인 것을 원칙으

로 한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봉사 활동을 회원들과 함께해 나가고 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실에서나 도서관에서 하는 책읽어주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었다. 그래서 한라독서회가 지역아동센터에 책 읽어주기 봉사를 간다고 하기에 처음으로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가기 전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언 3년이 지난 후라 책을 읽어 준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야 내 맘은 긴장과 함께 부담감이 엄습해왔다. '그래 미리 연습을 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책 선정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똥과 관련된 웃기는 책을 읽을까? 아님 옛이야기, 계절에 맞는 책을 읽을까? 결국 '아카시아 파마' 로 결정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연습하는데도 발음과 목소리 톤도 맘에 들지 않았다.

드디어 봉사하는 날 오후 4시50분, 노형에 있는 빙새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책읽기 활동을 시작했다. 말의 속도는 자꾸 빨라지고 발음도 새고, 등에서는 땀이 송글송글..., 하지만 이야기 후반으로 가면서 '아카시아 파마' 에 오롯이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봉사란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그들과 함께 나누는 동안 나도 그들로부터 봉사를 받고 있다는 즐거움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난 후 나의 목소리로 책을 들려줄 수 있는 곳이 있어 즐거움, 행복이라는 봉사를 내가 그들로부터 받고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나의 얼굴은 언제나 빙새기!

('빙새기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와서' 글마을에서 발췌)

독서회에서 함께함의 가치 등의 내면화된 경험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의 아동에 책읽기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B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통해 정조의 공부 습관의 과정들을 보면서 원가족의 관계가 한 아이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의 환경의 중요성을 배웠다.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정조이야기가 떠올라,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야, 그때 사도세자의 여동생 화완옹주는 오빠 사도세자를 제치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늘 오빠를 괴롭혀, 사도세자가 죽은 후에도 정조를 죽일려고 밤에 뱀을 풀어 놓거나 자객을 보내 정조는 늘 잠을 청하지 못해,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런 어려운 가족사를 극복하고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존경스러워, 어떤 성장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어른이 되는 것인가로 결정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원가족의 관계가 중요한거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힘을 얻게 돼(연구 참여자 B, 2019.3.20.).

그리고 과외학습 지도선생으로서 이혼가정의 한 초등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이의 아픔을 헤아리며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자 했다. 1년 후에는 소심해서 표현을 잘 하지 않았던 아이가 활발해지고 매사에 적극적인 아이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계기로 주변의 이웃 즉, 학교 선생님, 문방구 아저씨, 태권도장 선생님, 과외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이 한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의 가치를 배워갔다.

사회는 나누면서 사는구나를 배우게 되었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혼가정에서 자라 정말 골치아픈 애가 있어, 근데 그 아이 고모가 학원선생님, 문방구 아저씨, 태권도 선생님 등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부탁을 해, 문제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잘 보살펴 달라고, 근데 지금은 그 아이가 얼마나 예의 바르고 씩씩해졌는지 몰라, 어른들이 나누어서 한 아이를 케어해주고 사회라는 것은 그러면서 유지되는 것 같아(연구 참여자 B, 2019. 4.7).

학습동아리 안에서 학습자들은 집단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토론에 참여하면서 구체적 일상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 되기' 를 경험하는 것이다(김경애, 2006).

시민성 학습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시민성 학습의 내용)

의미 있는 진술	의미
1년 충무를 했는데 요즘 밴드에 답글 횡수가 줄어들고, 또 지난해 열심히 활동했던 두 분의 젊은 회원들이 빠지게 되면서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행부가 아니었을 때는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주체의식
지금은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포용하기로 했어. 다른 의견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다양성의 존중
빈곤의 연대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국민이 무능하면 나라가 가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신이 가진 파이를 좀 나눠 쓴다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부가 양극화 되버리면 사회는 모두가 힘들어져. 정치인도 그렇잖아.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하지	비판의식
봉사하면서 이런 힘이 모여져서 사회가 돌아가는 구나, 그럼 세월호, 촛불운동에 나도 힘을 보태야 되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되었지.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더라. 사회참여 할 생각도 생기더라. 실제 시청광장에 가서 시위참여도 했구.	공동체 의식

3. '한라독서회' 활동에서 시민성 학습의 상황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의 상황은 토론모임에서, 학습동아리 운영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 주변 이웃들과 동아리 활동에서 배워진 경험의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실천해가고 있었다.

가. 토론을 통한 독서와 일상의 연결

인문학학습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적역량과 비판적 사고능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성찰적으로 사고하고 논의를 교환할 수 있는 민

주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시킨다(양은아, 2010).

토론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왔던 경험들이었다. 책의 배경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그 경험만큼 달랐다. 한가지의 사안에 살아온 환경이 다른 만큼 서로의 느낌이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 힘들고 외울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방법적인 해답을 책의 주인공의 삶에서 그리고 서로의 경험 속에서 찾고 공유하며 배워가고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평등하고 존중받는 토론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참가자 1 산업화, 도시화로 경제혼란이 있었던 시대에 방황하는 소시민의 일상에 주목을 했다는 평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려웠어요 책 내용중에 여성비하 표현도 있었고 외래어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가자 2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유부남이 한 여자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것에 이해가 안 갔어요,

참가자 3 예술가들은 자유롭게 살면서 자유연애를 하지만 모 시인 같은 성추행같은 행위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참가자 5 어려움에 봉착하면 보통 세속을 떠나 자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무진은 주인공에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힘들수록 사람들이 치역하게 살고 있는 서울로 들어가 사람들이 삶을 들여다 보는 것도 색다른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6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자유롭게 되고 싶지만 결국 다시 현실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참가자 1 위안을 받고 싶으면 오히려 친구, 가족 등의 지인이 있는 따뜻한 한 곳이어야 하는데 무진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7 무진을 보면서 육지에서 이사와 특 떨어진 제주도에 살면서 육지로 막 가고 싶었던 충동을 느꼈던 적이 떠올랐어요,

「무진기행」을 읽고 토론한 내용중 발췌, 참여관찰, 2019.5.23

참가자 5는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 실제로 혼자 서울에 다녀왔다고 했다. 복잡한 서울에 가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위로받는 경

힘이 묻어나고 있었다. 참가자 1은 육지에서 이사왔는데 가족과 친구가 있는 고향이 늘 그리웠다.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힘들고 외로울 때 고향을 생각만 해도 위안이 된다고 하는 참가자 1에게 주인공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참가자 7도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다.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에 불쑥 육지로 떠나고 싶었던 그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

이처럼 토론을 통해 한가지 주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제주가 고향이 아닌 회원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끔 느끼는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살아가다 힘들 때 각자가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였다.

토론모임을 끝내기 전에 기타사항으로 토론 방식에 대한 건의가 나온다. 첫째는 한사람이 길게 자주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둘째, 인원이 많으니 두 팀으로 나누어서 토론해 보기 셋째,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는 잘 경청하는 자세를 갖기 등의 의견이다. 이와같이 토론모임 속에서 서로의 규칙을 정해가면서 보다 평등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 참가자 3 건의사항이 있어요 토론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해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토론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 참가자 4 저는 토론에 참여한 사람이 많아서 충분한 발언권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는 두 팀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해요,
- 참가자 1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 소곤거리면 옆에서 듣는 사람도 잘 안들리니 경청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썼으면 합니다,
- 참가자 8 발제를 할 때 준비한 프린트에 년도, 일자, 발제자명을 꼭 기입했으면 해요, 나중에 소중한 기록을 쓰일지도 모르니,

「무진기행」을 읽고 토론 끝나고 건의사항 제기 상황에서 발제, 참여관찰, 2019.5.23

토론이 끝나고 몇몇은 바로 돌아가지 않고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그날

토론에 대한 느낌들을 나눈다. 한 회원은 왜 자신이 매번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한다. 그리고 옆에 있는 회원들의 조언과 느낌이 이어진다.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기 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정리를 해간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토론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나왔고, 받아들이는 입장도 쉽게 수긍해주어 회원들간의 친밀감은 더욱 돈독해지고 있었다. 토론모임과 그 이후의 뒷풀이에서의 상호작용은 좋은 학습경험이 된다. 타인과 관계맺기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람시(Gramsci, 1971)는 시민교육방법에 있어서 상호토의와 비판과정을 기본 교육 방법으로 하는 대화법이 가장 적절한 시민교육의 방법이라고 했다. 대화법은 변증법적 의식을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식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신의 의식을 부정하고 현실의 모순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지니게 함으로써 새로운 의식으로의 '발전을 유도한다(이은미, 2015).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라는 책을 읽고 참여한 토론활동은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시민의 역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 토론 참가자1 진보 vs 보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선거하기 전에 정당의 성격 파악을 배운 적이 있었는지, 또 정당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 지를 생각하게 되었어,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노동자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주식투자자가 가져가는 형태는 독재이며 가치의 공동분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야, 자본을 불리는 사회에서 소외되는 노동 가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할까,
- 토론 참가자2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주의 방식은 그 속도가 느려 의견 충돌이 많아 기업은 독재주의로 가게 되는 거야
- 토론 참가자3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개인의 방향성이 달라서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나만의 이익이 아닌 나와 너의 가치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민의식을 높여야 하는 거야, 그리고
- 토론 참가자4 많은 정보 속에 그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개인의 시각 조정도 필요하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을 읽고 토론한 내용중 발췌, 참여관찰, 2018. 11.24.

회원들은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누구인지, 빈부격차는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노동자가 스스로의 이익과 어긋나는 정치 정당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시민의 의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상호토론을 통해서 학습하고 있었다. 사회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학습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동일한 문제를 사유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의 힘을 풀어내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한 문제상황으로부터 근본적인 관계를 통찰할 수 있는 사유능력을 기대한다(양은아, 2010).

나. 학습동아리 운영 참여

학습동아리 운영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겪는 일도 종종 생긴다. 의견차이가 커서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국 한 사안을 결정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되도록 모두의 관점을 담아내는 참여적 해법을 찾아 가고 있었다.

지난해는 통영으로 인문기행을 갔다 왔다. 세병관, 동피랑, 박경리 문학관 등을 견학하였는데 이때 문화해설사와 동반하자는 의견에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쪽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러 가는 것이니 필히 경비가 들더라도 문화해설사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어서 문화해설사 없이 견학을 가자는 의견이었다. 결국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해설사와 동반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는 갈등이 동반된다. 자기와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위기는 냉랭해질 때도 있다.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어나가는 과정에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학습해간다. 되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가고자 한다.

문화해설사와 동반문제로 회장님과 회원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회장님의 의견만을 따르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의 의견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 2019.3.25).

학습동아리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다양한 지식과 견해가 존중받으며,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조건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공유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독서회의 토론 방식에 대해서 기존회원과 신입회원의 의견 충돌에 더 이상의 합의점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밴드나 카톡에서의 대화를 통해 상이한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의견을 맞추어 민주적인 운영을 하려는 자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독서회의 토론방식에 대한 요구가 신입회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많아졌다. 인원이 많으니 두 팀으로 혹은 세 팀으로 나누어서 토론하자는 제의가 나온다. 치열한 토론을 위해서는 소수의 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기존 임원 회원들은 몇 년 전에 팀을 나누어서 토론을 해보았지만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고, 하반기에는 나오는 회원들이 적어지니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제 막 들어온 회원들은 기존 임원 회원의 의견에 더 이상 의견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밴드에 토론에 나왔던 의견들이 다시 정리되어서 올라오자 댓글에 신입회원의 의견이 올라오고 토론때 반대의견을 내놓았던 기존 임원 회원은 그 의견을 받아 들여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정리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바대로 2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거나 일대일 토론 등 다양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신입회원),
밴드 댓글에서 발췌(2019, 5.23)

2팀으로 나뉘어서 토론하는 문제는 임원진에서 상의해보시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따릅니다(기존임원 회원),
밴드 댓글에서 발췌(2019, 5.23)

임원진 활동의 경험에서 ‘한라독서회’ 회원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회원들 간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다른 의견의 조율방법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다. 학습동아리 모임결과 공유

좋은 시민이란 자기가 속한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신이 가진 유무형의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학습동아리 내에서의 학습과 참여경험의 순환은 거듭되고 경험이 쌓이며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통로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 관계 속에서 배움을 얻어 비로소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고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연구 참여자 D는 서기라는 임원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일상 속에 내면화함으로써 서로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 시간이 정해진 토론이다 보니 한 사람이 오래 이야기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가 적어진다. 그래서 신입회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존 회원들의 발언이 짧아짐을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 이런 배려의 모습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함께할 때 갖추어야 할 자세들이 ‘한라독서회’ 활동에서 학습하고 실천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한 분이 10분이상 발언하면 10명이 넘게 모였는데 다른 분들의 발언의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3개월후정도 되면 먼저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신입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려고, 저도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연구 참여자 D, 2019. 4.2).

독서회에서는 토론을 통한 지식함양만이 아니었다. 책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식과 지식의 깊이가 커지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D는 독서토론을 통하여 정치, 사회, 교육 등에 관한 관심이 생기면서 혼자 읽으면 자기만의 생각으로 끝날 것들이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사고의 변화를 느낀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가는 봉사활동이라 긴장해서 엄청 빨리 책을 읽었죠, 낯설었지만 그래도 뭔가 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신에게 얻는 것도 있었고, 토론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서로 연대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토론은 지식 함양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요?(연구 참여자 D, 2019.4.2).

연구 참여자 D는 ‘한라독서회’ 활동을 하다가 남편의 직장 전근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했다. 이사한 곳에서도 독서회에 가입하여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소각장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였다.

여기에 소각장이 생기려 해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환경단체가 알아서 싸워줄 줄 알았어요, 근데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단체와의 비리, 이장의 뇌물사건도 있었고,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허가가 나고, 환경단체가 알아서 해주겠냐고 생각했던 엄마들이 이 사실을 듣고 심각해졌죠, 환경청에 호소하고 청화대에 탄원서를 보내게 되고, 저도 여기 독서모임 회원들과 참여했죠, 사회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거잖아요(연구 참여자 B, 2019.4.3).

학습동아리 참여자들은 서로의 지식, 태도, 가치 등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한다. 그리고 학습결과는 개인의 성장과 새로운 비전의 발견, 공동체의 변화, 실천적 지식의 생성, 지역학습공동체 형성 등으로 나타난다(박상옥, 2007). 이와 같이 시민성 학습 맥락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을 정리하면 <표IV-3>과 같다.

<표IV-3>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시민성 학습 상황)

의미 있는 진술	의미
<p>그래서 나만의 이익이 아닌 나와 너의 가치를 위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민의식을 높여야 하는 거야. 그리고 많은 정보 속에 그 정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개인의 시각 조정도 필요하지.</p>	<p>토론을 통한 독서와 일상의 연결</p>
<p>문화해설사와 동반문제로 회장님과 회원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회장님의 의견만을 따르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회원들의 의견으로 맞추도록 노력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p>	<p>학습 동아리 운영참여</p>
<p>여기에 소각장이 생기려 해요. 주민들은 처음에는 환경단체가 알아서 싸워줄 줄 알았어요. 근데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환경단체와의 비리, 이장의 뇌물사건도 있었고.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허가가 나고. 환경단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엄마들이 이 사실을 듣고 심각해졌죠. 환경청에 호소하고 청화대에 탄원서를 보내게 되고. 저도 여기 독서모임 회원들과 참여했죠. 사회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하는 거 같아요</p>	<p>학습 동아리 모임 결과 공유</p>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연구자는 인문학 학습동아리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시민성과 그 시민성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한라독서회’ 활동 내용을 분석할 결과 시민성 요소 중에 주체의식, 다양성의 존중, 비판의식, 공동체 의식이 나타났다. ‘한라독서회’ 활동 과정에서 도출해낸 시민성을 Johnston(1999, 2004a)의 시민성의 유형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Johnston(1999, 2004a)의 통합적 시민성은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한 봉사 와 지역문제 참여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모두가 겪는 고통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회원들과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고, 이 정서적인 동질감은 지역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의 책읽기 봉사활동과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실천으로 이어져 ‘누구나가 시민이다’라는 통합적 시민성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동적 시민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Johnston(1999, 2004a)의 다원적 시민성은 다양성과 문화적 복합성을 수용할 줄 아는 시민성이다. 이 다원적 시민성은 ‘한라독서회’의 토론, 학습동아리 운영에 참여하면서 다름의 갈등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와 다름을 조율하고 수용하려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셋째, 성찰적 시민성은 ‘한라독서회’의 활동에서 나타난 주체의식과 비판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존에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찰하면서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동시에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라독서회’ 활동을 통해 Johnston(1999, 2004a)의 통합적 시민성과 행동적 시민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다원적 시민성, 성찰적 시민성도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행동적 시민성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회원들의 활동이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 이유는 공공도서관내 학습동아리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즉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이 회원을 모집하여 만들어진 독서회였기 때문에 결성 때부터 ‘한라독서회’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독서회의 성격을 논의

하고 공유하는 과정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책선정에 있어서도 회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회비판적인 서적은 조금 피하는 경향이 보였지만, 9년 동안 독서회가 활발히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거운 주제보다 생활에 가까운 주제로 선정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시민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마을 배움터, 협동조합, 학습동아리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교실 안에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함양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한라독서회’ 활동은 앞서서 시민성 학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논한 바가 있는데,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유형이 중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두 번째 유형인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 함양은 ‘한라독서회’ 활동에서는 봉사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시민성 학습의 세 번째 유형, 다른 교육활동 즉, 인문학교육 등의 연장선장에서 시민성 함양은 ‘한라독서회’ 활동에서는 인문학습과정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시민성 함양과정을 탐색한 인문학 학습동아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활동성 과로서 인문학적 소양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능력, 사회성, 시민성이 함양됨을 보여주었다. 송경미(2017)의 평생학습관의 학습동아리 ‘책누리’의 책읽기 재능기부를 통해, 이준석(2016)의 자발적으로 구성된 인문학 학습동아리 ‘문탁네트워크’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는 인문학 학습을 통하여 시민성의 형성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성이 토론에서만 아니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내면화됨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 시민성의 내면화는 토론, 인문기행, 봉사활동 등의 활동 참여과정에서, 그리고 학습동아리에서 배워진 경험의 결과가 봉사활동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이루어짐을 밝혀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활동 참여라는 일상생활 속의 살아감의 과정에서 시민성을 학습하는 과정을 드러냈는데 있다. 인문학학습과정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양된 주체의식,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의식이라는 시민성은 민주적인 토론 방식, 성찰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인 결정방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2. 결론

사회의 불평등의 격차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정치권은 이런 서민들의 고달픔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기 보다 자신의 정당의 이익을 위한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며 시민성은 어떻게 학습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학습동아리 활동에 나타나는 시민성과 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과 시민성의 유형과 시민성 학습의 유형, 인문학과 학습동아리에 관련된 개념과 이론들을 검토하면서 활동 경험에 나오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분석하였다.

‘한라독서회’라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민성의 요소 중 주체의식, 다양성의 존중, 비판의식, 공동체 의식이라는 네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 네 가지 특성들은 Johnston(1999, 2004a)의 시민성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시민성 학습유형에 있어서는 두 번째 유형인 사회참여 활동의 결과로서 시민성 함양과 세 번째 유형인 다른 교육활동 즉, 인문학교육 등의 연장선장에서 시민성 함양이 중복해서 나타났다.

‘한라독서회’는 완전 자발적 동아리가 아닌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자발적인 성격이 있었다. 하지만 토론과 인문기행, 봉사활동 등은 자발적으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었고, 이에 필요한 장소와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회원들은 학습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인문교양서적 선정 방법, 토론기법등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 스스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가고 있었고, 여행사 도움이 없이 도외 인문기행을 준비, 실행하면서 그 활동 속에서 주체의식, 다양성의 조율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활동 참여를 통한 무형식 학습 속에서 시민성을 함양하고 있음을 드러냈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오늘날 지역문제의 갈등의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동적인 시민이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시민성을 길러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반적인 시민성 형성 토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학습동아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지역주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한라독서회’ 이외에 지역내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법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보도자료(2018.3.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민주 시민교육 원탁 토론회 개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8). **평생교육백서**.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 권영선(2016). 성인학습자의 학습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애(2006). 공동경험 구성과정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미란(2015). 시민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수원시 평생학습관(편).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 만나는 시민교육**(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pp. 67-77). 수원: 수원시평생학습관.
- 김미윤(2015).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은평의 경험. 수원시평생학습관(편):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 만나는 시민교육**(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pp. 45-63). 수원: 수원시평생학습관.
- 김민호(2002).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 평생학습문화 형성 방안. **평생교육학연구**, 8(1), 21-40.
-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17(3), 193-221.
- 김민호(2014). 학습사회와 시민사회의 결합. **교육연구논총**, 35(1), 169-199.
- 김민호(2015). '학습의 일상성' 구현: 장애요인과 기본원칙. **평생학습사회**, 11(1), 1-26.
- 김민호(2016). '시민성 학습의 일상화': 의미, 조건 및 과제. **평생학습사회**, 12(3), 1-28.
- 김영민(2013). 노인 동아리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김영인·설규주(2008). **시민교육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종선 외(2013). 시민참여 실천조직으로써 남양주시 평생학습매니저의 확장학

- 습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9(2), 1-32.
- 문탁네트워크(편). (2013). **공부, 요~물!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2013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용인: 문탁네트워크.
- 박상옥(2009). 지역사회 실천조직으로서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과정: 부천 생태안내자모임 청나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연구**, 15(1), 225-259.
- 서계녀(2009). 공공도서관 기반 학습동아리 운영실태와 참여자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성남시평생학습과(2019). 2019년 민주시민교육 운영 계획.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인출.
- 송경미(2017). 학습동아리의 지역사회실천을 통한 임파워먼트 과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송호근(2015). **나는 시민인가**. 서울: 문학동네.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세계시민성과 지역시민성의 조화로운 함양을 위한 후천적 보편주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연구**, 32, 151-178.
- 신민선(2004). 성인학습동아리 학습자의 참여지속 요인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승대(2011). 그림시의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39, 109-130.
- 양은아(2009). 성인 인문학습과정에 나타난 삶과 학습의 선순환적 경험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양은아(2009). 대중인문학교실 참여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경험적 변화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4), 35-74.
- 양은아(2010). **인문학과 평생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 이관춘(2011). **호모 키비쿠스: 시민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 서울: 학지사.
- 이승훈(2003). 한국사회의 '시민됨' 형성과정: 자발 결사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은미(2015). 시흥시 시민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 석사

-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준석(2016). 문탁네트워크 사례를 통한 본 실천공동체 구성원들의 학습경험. 박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오혁진(2003). 학습동아리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재고찰, **동의대학교 동의 논문집** 제38권, 113-117.
- 오혁진(2006). **지역평생공동체와 평생교육**. 서울: 집문당.
- 이지혜·홍숙희(2002). 학습동아리 활동에 나타난 학습역동: 성인여성학습동아리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8(1), 177-200.
- 정성원(2015). 시민교육, 변화의 조건을 구축하자. 수원시평생학습관(편),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 만나는 시민교육**(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pp. 81-97). 수원: 수원시평생학습관.
- 정유진(2008). 학습동아리의 집단역동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교육대학원.
- 조재은(2009). 학습공동체구현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조창희(2018). 인문학동아리 구성원들의 활동에 나타난 전환학습 경험 - 독서동아리 '달팽이' 사례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2004). 학습동아리 지도자 가이드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희, 양은아(2007).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인문학습의 새 지평: 인문학 위기론의 재해석. **평생교육학연구**, 13(4), 27-54.
- 홍숙희(2011). 지역거버넌스에 의한 부천 지역평생교육 체제 형성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석순(2015). 독서동아리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 Center for civic Education. (1996). **생활속의 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센터 역). 서울: 원미사. (원저 1996 출판)

- Freire, P. (2018). **페다고지**(남경태 역). 서울: 그린비. (원저 1970 출판)
- Gramsci, A. (1999). **그람시의 옥중수고**(이상훈 역). 서울: 거름. (원저 1971 출판)
- Habermas, J.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조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한승완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90년 출판)
- Heater, D. (2007). **시민교육의 역사**(김혜성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원저 2003 출판)
- Johnston, R. (1999). Adult learning for citizenship: Toward a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purpose tra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3), 175-190.
- Johnston, R. (2004a). Adult learning for citizenship: A framewok for understanding and practics. In P. Core & R. Johnston (Eds.). *Adult learning, citizenship and community voices: Exploring community-base practice*(pp. 53-71). Leicester : NIACE.
- Merriam. S. B. (2009). *Quali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ABSTRACT

Citizenship Learning by Participation on Learning Circle

: A case study of Halla Reading Club in Jeju

Ko, Jung Hee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in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ntents of learning club activities and the citizenship shown through the activities and to explore the context in which citizenship learning is being conducted. For this purpose, we looked at the motivation and contents of th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Halla Reading Society', the change of consciousness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activities, and the practical activities accordingly.

The researcher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on members of the 'Halla Reading Society', a type of learning club, through a literature survey, in-depth interview, and observation of

participation. The data on the activities were reviewed in detail through the Daum cafe and Band records, the members' writing collections, meeting materials, and the publication materials for discussion, and the experience and feeling of the activit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the members of the 'Halla Reading Society'. The changes in perception and life were explored. In addition, while observing the participation, I tried to find the meaning and context of citizenship learning through vivid feeling in the field of activity.

After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Halla Reading Society" activities through the research, "Halla Reading Society" was engaged in the daily activities of the "Halla Reading Society," "special activities of the "Halla Reading Society," and "Halla Reading Society." The activity has resulted in a sense of subjectivity, respect for diversity, criticality and community among the elements of citizenship. The owner of his own life was developing a sense of subject as he recognized himself and assumed a responsible attitude in reading society activities, and he was learning the understanding, acceptance and coordination of diversity while working with members of different backgrounds of life. He was fostering self-reflection through humanities books and a sense of criticism of society, and the experience and emotional homogeneity acquired in activities were manifested in his actions for service to neighboring neighbors and for solving local problems.

In the 'Halla Reading Society' activity, citizenship learning was carried out through the discussion, the connection of everyday reading, the participation of learning clubs, and the sharing of learning club results. In the debate, people were learning the principles and wisdom of life through the life experiences of the

characters and members of the book, and the process was being conducted in an equal and respectful manner of discussion. While deciding on one issue when it comes to participating in the operation of a learning club, we were looking for a participatory solution that captures everyone's views while respecting each other's opinions. Also, the experience and wisdom gained from the "Halla Reading Society" activities were leading to volunteer work for neighbors and local residents and practice in solving local problems.

In this study, active citizens who respect diversity are required in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many conflicts due to local problems today.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show that the government fosters citizenship not only in classrooms or education programs, but also in informal learning through participation in learning clubs based on humanities.

key word : Citizenship, Citizenship Learning, Learning Club Activities

[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

인터뷰 일정 : 2019년 월 일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연구에 참여하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는 ‘한라독서회’를 통해 나타나는 시민성과 그 맥락은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드립니다.

1. 선생님의 자유의사에 의해 연구에 참여해 주십시오.
2. 선생님께서는 언제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시며, 본 연구 참여를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뷰는 녹음되며 녹음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 종료 후에는 폐기될 것입니다.
4. 인터뷰 내용중 일부는 논문에 인용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2019년 2 월 일

연구자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학과 석사과정 고정희
연락처 : 010 - 8502 - 7354 E-mail : ccmmkj@hanmail.net

연구 참여자 :

(서명)

[부록 2] 연구 참여자를 위한 질문지

‘학습동아리 활동 참여를 통한 시민성 학습’ 인터뷰 질문지

질문영역	질문내용
기본분석	성별, 연령, 학습동아리 참여기간, 직업, 학력
참여동기	독서를 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독서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독서회에 들어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
활동내용	혼자 읽을 때와 독서회에서 읽을 때의 장 단점은? 독서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았던 점은? 힘들었던 점은? 독서회 활동에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독서회를 탈퇴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활동결과	독서회 활동을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의 삶에 독서회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독서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회 활동을 통해 배운 것으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나요?